

재활 운동 및 체육 서비스 운영 사례 비교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박성훈*, 이안나*, 김성신**, 최묘정**, 김주희*, 이형주*, 이민지*, 호승희*, 권효순**, 배영현*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 **임상재활연구과
e-mail: baeyh@naver.com

Comparative Case study on Operation of Rehabilitation Exercise and Sports Service : Focusing on Public Institution

Seong Hun Park*, Anna Lee*, Sung shin Kim**, Myo-Jung Choi**, Ju Hee Kim*,
Hyoung Ju Lee*, Min Ji Lee*, Seung Hee Ho*, Hyo sun Kweon**, Young-Hyeon Bae*
*Dept. of Healthcare and Public Health,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Dept. of Clinical Rehabilitation Research,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 재활 운동 및 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공공기관의 운영 사례를 조사 및 비교하였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위한 재활 운동 및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로 조사되었고, 각 기관마다 재활 운동 및 체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였다. 재활 운동은 4기관 중 3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1기관은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재활 체육은 2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다른 2기관에서는 스포츠활동 참여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위탁 운영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별 시설 및 지도자 보유나, 재활치료 및 생활체육 연계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운영 방식 및 이용 전달체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운동 및 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반다비 체육관과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시설, 지도자와 서비스 이용 전달체계를 정립하여 사회적 인식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서론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릇된 인식은 장애인을 제도적/문화적으로 사회에서 배제 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할 수 있는 권리', '스포츠/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과 장애인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를 제도적 추진체계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장애인 건강권 법 중 15조 '재활운동 및 체육'을 장애인의 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이러한 차별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기회와 권리 등에 대한 주변화 현상과 차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문대훈, 2018). 특히 의료적 재활단계 이후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회복과 체육기술을 습득하는 재활체육 서비스는 여전히 보급이 잘 되고 있지 않다(조재훈, 2014). 그리고 체육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재활은 재활치료, 재활운동, 재활체육, 생활체육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재활치료, 생활체육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해하기 쉽고 개념이 명확하다. 하지만 재활운동 및 재활체육은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시설, 지도자와 서비스 이용 전달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활성화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재활 운동 및 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공공기관 운영 사례를 조사 및 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공공기관별 재활 운동 및 체육 서비스 운영사례 비교를 위해 국내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재활 운동 및 체육 서비스 운영 방식, 시설과 지도자 보유에 관한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다.

3. 결과

재활 운동 및 체육 서비스 운영 공공기관은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4 곳으로 조사되었고, 재활 운동 및 체육에 대한 정의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재활 운동은 ‘스포츠적 개념 즉 경쟁, 규칙, 상호작용 등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신체기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재활 체육은 ‘스포츠적 개념이 포함되고 종목의 개념으로 구분되는 스포츠활동’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그러나 시설이나 지도자 보유는 공공기관별 차이를 보였지만 조작적 정의가 어려워서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표 1].

[표 1] 공공기관별 재활운동 및 체육 운영 방식 비교

| 항목 | 국립재활원 | 근로복지공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
| 장애 유형 | 일반질환 | 산업재해 | 국가유공 | 선원재해 |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가보훈처 | 해양수산부 |
| 재활 운동 운영 방식 | 직접 | 직접 | 직접 | 미운영 |
| 재활 체육 운영 방식 | 직접 | 직접/위탁 | 직접 | 위탁 |

3.1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은 재활병원 내 물리치료사들이 지도하는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입원환자들의 초기재활운동이 해당된다. 운동부하검사, 근력측정, 위험도 분류를 통한 의사의 처방 하에 이루어지고, 4주간의 초기 재활치료가 끝나면 재활체육 단계로 연계된다. 국립재활원의 재활체육 프로그램은 초기재활이 끝난 입원환자와 재활체육에 참여하기 위해 내원하는 외래환자도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체력단련실에서 이루어지는 근력, 심폐지구력 등의 재활 운동과 배드민턴, 탁구, 보치아와 같은 스포츠체험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재활체육강좌가 있다. 재활체육을 통하여 기초체력 향상과 기술습득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지역사회로 연계하여 자발적인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도 운영하여 신체조성, 심폐능력, 근력 등 6가지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수준에 맞는 운동방법을 교육하고, 운동 전·후나 주기별로 체력측정을 하여 결과를 비교분석 한

다. 또한 사회복지지원 프로그램으로 거주지 주변의 체육시설을 안내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등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더불어 건강증진 체험행사, 장애인생활체육 대회 등 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를 개최하여 심리적, 사회적 회복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3.2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10개의 직영병원, 4개의 직영의원을 운영 중이며 이 중 8개의 병원에서는 재활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센터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자와 수술 6개월 이내의 산재환자에게 12주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작업능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신체적, 기능적 직업상 요구되는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운동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는 수중 자전거, 수중 트레드밀, 휠체어에서 바로 입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수중재활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활스포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골프, 라인댄스, 실내양궁 등의 형태이며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실시한다. 인천병원에서만 체육지도자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다른 병원에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외부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을 통해 외부 스포츠기관에서 재활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통원요양 중이며 장애가 예상되어 재활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조건이 있는 대상과 장애등급 결정을 받고 현재 요양 종결 후 6개월 이내인 경우이다. 일반스포츠시설의 경우 월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하고 특수재활스포츠의 경우 월60만원 범위 내에서 1개월간 지원한다. 일반재활스포츠와 특수재활스포츠는 종목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데 일반재활스포츠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생활발레, 라인댄스, 줌바댄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 실내양궁이 해당되고, 특수재활스포츠는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이 해당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피트니스 멤버십 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맺어 재활스포츠 위탁기관을 기존 491개소에서 4,100개소로 확대시키며 서비스이용자들이 주거지에서 더 가까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의 참여율을 높였다.

재활스포츠 지원사업 외에 재활운동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은 요양이 종결된 12급 이상의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된

다. 월 15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고, 사업장 자체 스포츠 시설이나 외부 스포츠시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3.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보훈법령에 의거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보훈재활체육센터를 직접 운영중이다. 서비스의 주요대상은 국가유공자이고, 보훈가족이나 장애인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문체육, 재활체육, 생활체육, 체육활동지원으로 구분하여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체육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 등의 전문체육인 육성과 체육활동을 통한 국제교류, 선수 및 지도자의 훈련을 지원한다. 보훈재활체육센터에는 양궁장, 탁구장, 론볼장, 사격장, 종합체육관, 물리치료실 등 전문체육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종목의 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다. 재활체육 프로그램으로는 의료적 치료단계가 끝나거나 거의 완료된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초체력 측정 및 개별적 체력단련,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물리치료실에서의 치료도 병행한다. 재활운동 뿐 아니라 배드민턴, 론볼, 양궁, 바이애슬론 등 재활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훈가족이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체험, 장애인스포츠체험, 이론교육 등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이군경체육대회 등 각종경기대회 지원과 국가유공자 재활사업에 관한 연구도 수행 중에 있다. 보훈재활체육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재활체육 프로그램은 전체의 약 96%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등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구자춘, 2022).

3.4.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장애인 선원을 대상으로 재활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장애인 선원을 대상으로 1인 1회 6개월 이내로 월20만원 이내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원대상 장애인위는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애, 척추의 변형기능 또는 신경장애, 팔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애, 팔다리 및 척추부의 장애가 아니더라도 장기간 요양으로 전체 신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나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제10급 이상의 장애가 해당된다. 바우처는 스포츠기관, 장애인 복지시설기관, 기타

법령에 따른 스포츠활동 시설을 갖춘 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직접 알아보고 신청, 선발의 과정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또한 민간 재활체육센터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센터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4. 결론

공공기관별 재활 운동 및 체육 서비스 운영 방식에 차이를 볼 때,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 운동 및 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반다비체육관과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시설, 지도자와 서비스 이용 전달체계를 정립하여 사회적 인식변화를 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되었음(과제명: 인지·신체 복합 중재 재활운동 증강 디바이스 기술 개발, 과제번호: SR202106002)

참고문헌

- [1] 강동현, 박지영, 임승진, 이금주, 호승희, 은선덕, 장애인 재활체육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020, 제28권 제1호. pp. 15-30
- [2] 구자춘, “보훈재활체육센터 이용 만족도 및 개선방안: 국가유공상이자 전문체육선수 중심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3] 김지태, “재활운동 및 체육 서비스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장애당사자의 견해”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021, 제29권 제4호. pp. 141-152
- [4] 노형규, 이동철, “재활체육의 역할탐색 및 장애인체육과의 연계방안”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016, 제24권 제1호. pp. 53-70
- [5] 문대훈, 2018. “재활체육 제한환경 및 해결과정 탐색” 한신대학교 학위논문
- [6] 박지영, 강동현, 은선덕, “장애인건강권법 제 15조 ‘재활운동 및 체육’의 정의와 시행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021. 제29권 제2호. pp. 157-173
- [7] 서해정, 조재훈, 정수연, “장애인 재활체육 서비스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보고서 2016
- [8] 조재훈, “장애인 재활체육의 딜레마와 생활체육과의 연계”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014. 제22권 제4호. pp. 75-86